

한국의 토목시공업체

류 철 호
대우건설 전무

1997년 11월 외환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체제에서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힘이 들었다. 우선 토목부분 지난 5개년간 계약실적의 추이를 보면 1997년 33.8조원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이제 2001년에는 23.2조원으로 전망이 된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2000년도 상위 11개 건설사의 실적을 분

석하고 앞날을 대비코져 한다.

건설업계의 큰 변동은, 우선 1999년에는 쌍용건설이 4월에 워크아웃 상태가 되었고 또한 국내 토목업체의 정상급 회사인 대우의 건설부문은 8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2000년 말에 기업분할후 대우건설로 새로이 탄생하여 주식시장에 재상장하게 되었다. 2001년 3월에 동아건설산업이 부도로 청산 예정이며, 4월에는 현대건설이 자본잠식 상황이 되었다.

<표 1> 건설공사 계약실적의 추이 및 전망

(단위:조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전망)	
공공	35.6	45%	29.5	62%	24.4	48%	24.6	41%	25.5	42%
민간	44.3	55%	18.4	38%	26.7	52%	35.5	59%	34.7	58%
계	79.9	100%	47.9	100%	51.1	100%	60.1	100%	60.2	100%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전망)	
토목	33.8	42%	25.0	52%	20.8	41%	22.4	37%	23.2	39%
건축	46.1	58%	22.9	48%	30.3	59%	37.7	63%	37.0	61%
계	79.9	100%	47.9	100%	51.1	100%	60.1	100%	60.2	100%

※ 자료: CERIK 분기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년4월)

매 출 액

2000년도 상위 11개 건설사의 토목사업본부 매출실적을 보면 1조6,995억원부터 3,045억에 달한다. 평균 매출액은 2000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상위 11개사는 평균 5%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년도 평균 6,971억원에서 4% 감소한 6,721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국내 매출액이 2% 감소인데 반해, 해외매출액의 상대적으로 11%의 대폭감소 때문이다.

업체별 실적을 보면 현대건설이 1조6,995억원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건설과 더불어 2,3위인 대우건설, 삼성건설등 상위 3개사의 매출액이 11개사 전체의 약 50%에 육박한다.

규모별로 1조원이상 1개업체, 5,000억원 이상 5개업체, 3,000억원 이상 5개업체를 나타내어 규모별 업체수는 전년도와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순 위

1999년에 비해 동아건설이 3위에서 10위로 내려갔고, 한진중공업이 새로 6위로 진입했다. 이 때문에 동부건설이 11위안에 들지 못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순위의 큰 변동은 없었다.

해외매출

상위 11개사중 토목부문 해외매출 실적을 가진 회사는 8개사로, 전년도 6개사에서 LG건설, 한진중공업의 추가로 2개사가 늘어났다. 지난

해 해외매출의 11%감소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따른, 특히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문제에 기인한 것과 더불어 동아건설의 해외매출 50%이상 감소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회사별로 차지하는 해외매출비중은 동아건설이 42%이고, 현대건설 31%, 삼성건설23%, 대림산업 22% 순이다. 가장 낮은 LG건설은 1% 11개사 평균 16%의 해외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해외지향성은 해외시장으로의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진출 전략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인당 생산성

토목직 1,256명의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가 1,000명 미만의 토목직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 11개사의 평균 토목직은 562명으로, 1999년 대비 10%의 감소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이 각사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생산성은 12억으로 전년대비 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본 부 장

상위 건설 11개사 토목사업본부의 본부장들을 살펴보면 사장이 1명, 부사장이 4명, 전무 2명, 상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우건설, 삼성건설,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작년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강태호 상무,

대림산업 김철중 부사장, LG건설 황무성 상무, 쌍용건설 이병석 상무, 동아건설 허호 부사장 및 SK건설 유용석 상무 등이 새로운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토목사업본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본부장은 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보좌하여 토목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COO(Chief Operating Officer)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영업환경의 변화로 토목본부장이 영업을 관장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토목건설산업의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

표2에서 보듯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공사 낙찰율이 1997년 이후 1999년 까지 크게 하락하여 적정한 이익의 보장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적정한 이윤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와해될 위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어느 한 해보다 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건설수주는 1999년 대비 33.0% 증가하

였으나, 공공 부문 건설 수주는 0.8%의 증가에 그쳤다. 또한 토목과 건축의 투자 비율에 있어서 1998년 52대48로 비슷한 규모를 양상을 보였으나, 2001년에는 39대61로 물량이 축소되었으며 토목주력업체의 부진은 특히 주목해야할 현상으로 지적된다.

맺음 말

IT산업의 발전으로 건설업계가 정보혁명을 겪는 상황에서 2년에 걸친 상위 건설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0년 건설산업은 건설물량 회복부진으로 인한 경쟁격화 및 공공공사의 낙찰율의 하락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된 한 해를 보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누구보다도 더, 꾸준히 또한 열심히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건설의 역량을 잘 발휘하여야 할 때이다. 현재 대표주자가 없는 토목 건설업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여 보다 발전된 건설업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표 2> 연도별 공공공사 낙찰율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공공공사 낙찰율	85.6%	79.3%	73.0%
1997년 대비	100	93	85

※ 자료: 2001년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년3월)표2 연도별 공공공사 낙찰율

<표 3> 2000년 상위 건설사 토목사업본부 실적

No.	회사명	총 매출 (억원)		국내 (억원)		해외 (억원)		해외 비중 (%)	토목직원 (명)		생산성 (억/년,인)		본부장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1	현대건설	1조6,995	-10	1조1,786	-9	5,209	-10	30.7	1,256	-22	13.5	15	상 무 강태호
2	대우건설	9,401	10	8,581	11	820	8	8.7	782	-11	12.0	24	전 무 류철호
3	삼성건설	9,367	30	7,260	26	2,107	45	22.5	650	-4	14.4	34	사 장 김선구
4	대림산업	6,018	-9	4,677	-5	1,341	-20	22.3	543	10	11.1	-17	부사장 김철중
5	LG건설	5,758	-13	5,711	-13	46		0.8	550	10	10.5	-21	상 무 황무성
6	한진중공업	5,450		4,790		660		12.1	550		9.9		전 무 김정용
7	두산건설	4,721	18	4,721	18	0		0.0	311	-1	15.2	20	부사장 황일용
8	현대산업개발	4,530	-2	4,530	-2	0		0.0	380	4	11.9	-5	부사장 임무언
9	쌍용건설	4,460	-22	4,300	-20	160	-47	3.6	372	-8	12.0	-15	상 무 이병석
10	동아건설	4,184	-50	2,439	-50	1,745	-51	41.7	499	-52	8.4	4	부사장 허 호
11	SK건설	3,045	-6	3,045	-6	0		0.0	289	-27	10.5	29	상 무 유웅석
평	균	6,721	-4	5,622	-2	1,099	-11	16.4	562	-10	12.0	8	

※ 증감:전년대비 %

<표 4> 1999년 상위 건설사 토목사업본부 실적

NO.	회사명	총 매출 (억원)	국내 (억원)	해외 (억원)	해외비중 (%)	토목직원 (명)	생산성 (억/년,인)	본부장
1	현대건설	1조8,795	1조3,004	5,791	30.8	1,600	11.7	부사장 정상구
2	대우건설	8,516	7,757	759	8.9	877	9.7	전 무 류철호
3	동아건설	8,400	4,870	3,530	42.0	1,040	8.1	전 무 김영창
4	삼성건설	7,233	5,775	1,458	20.2	674	10.7	부사장 김선구
5	LG건설	6,600	6,600	0	0.0	500	13.2	전 무 구본국
6	대림산업	6,596	4,916	1,680	25.5	494	13.4	전 무 이규재
7	쌍용건설	5,700	5,400	300	5.3	405	14.1	부사장 안옥남
8	현대산업개발	4,600	4,600	0	0.0	365	12.6	전 무 임무언
9	두산건설	4,000	4,000	0	0.0	315	12.7	전 무 황일용
10	SK건설	3,240	3,240	0	0.0	396	8.2	전 무 정규상
11	동부건설	3,000	3,000	0	0.0	230	13.0	전 무 이순병
평	균	6,971	5,742	1,229	17.6	627	11.1	